

# 자이언티 “뻔하지만 진정성 담았죠”

1년만에 새앨범 선보여... “다른 작사가와 함께 작업 이례적”  
 “2020년대 되면 새 감성 표현하고자 ‘5월의 밤’으로 마무리”



자이언티가 ‘5월의 밤’으로 본인 음악의 한 챕터를 마무리한다. 6일 오전 서울 마포구 토정로 한 카페에서는 자이언티 새 디지털 싱글 ‘5월의 밤’ 발매 기념 라운드 인터뷰가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자이언티는 새 싱글에 대한 이야기, 공백기 근황, 향후 계획 등에 대해 들려줬다. 자이언티는 6일 오후 6시 각종 온라인 음원사이트를 통해 ‘5월의 밤’을 발표했다. 지난해 10월 발표한 미니앨범 ‘ZZZ’

이후 자이언티가 약 1년 만에 공개하는 신보다. 자이언티는 신곡 발표가 늦어진 것에 대해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음악 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가 오랜만에 나왔다. 사실 고민을 많이 했다. 아무래도 좋은 음악을 들려드리고 싶고 새 시도를 하고 싶어서 욕심을 냈는데, 2020년대가 되면 새로운 감성을 표현해보자 싶어서 갖고 있던 노래를 털어내는 마음으로 ‘5월의 밤’을 발표하게 됐다. 이 노래로 멜로한 감성의 자이언티를 마무리하고 다음 챕터로 넘어가고 싶다”라고 말했다.

‘5월의 밤’은 자이언티가 과거 연애 초반의 경험을 바탕으로 직접 쓴 자작곡이다. 모르는 사람과 사랑을 하게 되고, 서로 맞춰가면서 느꼈던 어려움 및 설렘의 기분을 이 곡에 담았다. 특히 작사가 김이나가 곡에 참여해 더욱 기대감을 높인다. 자이언티는 “주로 혼자 작사를 해왔는데 다른 작사가와 함께 작업한 게 이례적인 일이다. ‘5월의 밤’ 작업을 하면서 이야기가 너무 개인적인 이야기가 아닌 모두의 이야기가 됐으면 좋겠어서 김이나 작사가에게 협업을 요청했다”라고 컬래버레이션

선 계기를 밝혔다. 이어 “김이나 작사가를 존경해왔다. ‘어떻게 하면 다작을 하면서도 이렇게 좋은 글을 써내려 갈까’ 생각했다. 그러다 ‘늘면 뭐하니?’를 통해 만날 기회가 있어서 자연스럽게 요청하게 됐다”며 작업물에 만족한다고 전했다.

자이언티는 ‘5월의 밤’을 통해 특유의 감미로운 보컬과 서정적인 감성,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가사로 리스너들의 귀가를 사로잡을 계획이다. 그는 “사실 ‘5월의 밤’이 음악적으로는 전형적이고 뻔하지만 내용에는 진심을 담았다. 지금 내가 말하고 싶은 걸 표현하고 싶었다”라며 “제목도 발표 시기 때문에 고민을 했는데 진정성을 담고 있어서 ‘5월의 밤’으로 나오게 됐다”라고 솔직하게 말했다.

그는 내년부터 타 가수 프로듀싱으로 영역을 넓히고 싶다고 했다. 자이언티는 “프로듀싱에 관심이 많다. 아이돌 그룹, 레퍼다 좋다. 그동안 다른 가수들과 작업을 하면 컬래버레이션의 느낌이 강했어서, 새로 하면 내가 모르는 사람과 함께하면 좋겠다. 지금 이렇게 간판 건다. 많이 의외해달라”고 하며 웃었다. 같은 소속사 내 전소미와의 작업 가능성에 대해서는 “소미와는 회사에도 자주 마주치는데 곡 이야기를 많이 한다. 가끔 ‘이런 거 해볼래?’라며 곡을 들려준 적도 있다. 협업을 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했다.



## JTBC 새 드라마 ‘이태원클라쓰’

박서준→김다미까지 싱크로율 ↑

2020년 상반기 방송 예정

‘이태원 클라쓰’가 첫 대본 리딩부터 클래스 다른 연기 포텐을 제대로 터뜨렸다.

JTBC 새 금토드라마 ‘이태원 클라쓰’(극본 조광진/연출 김성윤) 측은 6일 ‘합’하고 ‘핫’한 배우들의 에너지 넘치는 열연과 시너지로 가득했던 대본 리딩 현장을 공개했다.

동명의 다음웹툰을 원작으로 하는 ‘이태원 클라쓰’는 불합리한 세상 속, 고집과 객기로 똘똘 찡춘들의 ‘합’한 반란을 그린 작품이다. 세계를 압축해 놓은 듯한 이태원의 작은 거리에서 각자의 가치관으로 자유를 쫓는 그들의 창업 신화가 다이내믹하게 펼쳐진다.

‘구르미 그린 달빛’ ‘연애의 발걸음’ 등을 통해 감각적인 연출력을 인정받은 김성윤 감독이 메가폰을 잡고, 원작자 조광진 작가가 직접 대본을 집필해 드라마 팬들의 기대를 높이고 있다.

지난 8월 상암동 JTBC 사옥에서 진행된 대본 리딩에는 김성윤 감독, 조광진 작가를 비롯해 박서준, 김다미, 유재명, 권나라, 김동준, 안보현, 김해은, 류경수, 이주영 등 주요 출연진이 한자리에 모여 연기 열전을 펼쳤다.

강력한 개성으로 무장한 원작 캐릭터에 새로운 매력을 불어넣은 배우들의 호흡은 첫 만남부터 빛났다.

먼저 박서준은 소신 하나로 이태원 점수에 나선 거침없는 직진 청년 박새로이의 매력을 극대화하며 모두의 기대를 확신으로 만들었다. 요식업계의 대기업 ‘장가’를 향한 통쾌한 반격을 시도하는 박새로이에 완벽하게 녹아들어 패기 넘치는 청춘의 얼굴을 그려냈

다.

신이 내린 두뇌를 장착한 ‘고지능’ 소시오패스 조이서로 분한 김다미는 독보적 연기와 매력을 장착하고 ‘만찐’ 싱크로율을 선보였다. 천사 같은 얼굴에 반전의 성격을 가진 조이서의 다크 카리스마를 완벽하게 그렸다.

유재명은 요식업계 대기업 ‘장가’의 회장 장대희 역으로 연기 변신에 나섰다. 자비 따위 없는 냉철한 사업가의 포스로 분위기를 압도하며 목직한 존재감을 발산했다. 특히 아들의 사고로 얽힌 원수이자, 자신을 위협하는 사업 라이벌인 박새로이로 분한 박서준과 대립하는 장면에서는 완벽한 호흡으로 숨 막히는 긴장감을 자아내기도.

박새로이의 첫사랑 오수아 역은 다수의 드라마로 열일 행보를 이어가며 자신의 필모그래피를 차근차근 쌓아가고 있는 권나라가 맡았다. 솔직하고 당당한 모습 뒤에 어린 시절의 아픔을 간직한 오수아는 오로지 자신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선택으로 박새로이의 라이벌이 된다.

‘이태원 클라쓰’ 제작진은 ‘원작의 재미와 공감을 증폭할 배우들의 열연과 시너지가 빛났다. 자신만의 개성과 연기를 덧입혀 캐릭터의 매력도 배가된 것 같다’며 “다채로운 이태원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이야기인 만큼,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이니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립니다”고 전했다.

‘이태원 클라쓰’는 ‘택시운전사’ ‘암살’ ‘터널’ 등 작품성과 대중성을 갖춘 영화를 선보여온 쇼박스의 첫 번째 제작 드라마로 JTBC 새 금토드라마 ‘초콜릿’ 후속으로 2020년 상반기 방송된다.

뉴스1

## 美 빌보드 “빅톤, 3년만의 노력이 차트서 결실 맺었다”

미국 유명 매체 빌보드에서 그룹 빅톤의 컴백을 집중 조명했다.

빌보드는 지난 4일 공식 홈페이지에 ‘빅톤 ‘그리운 밤’으로 컴백 앞두고 소셜50 데뷔하다(Victon Make Social 50 Debut Ahead Of Comeback With ‘Nostalgic Night’)’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다.

빌보드는 빅톤이 트위터 내에서 뜨거운 반응을 불러일으키며, 소셜 50 차트에 지난 2일 45위로 첫

진입했음을 알리며, “빅톤은 K팝 씬에 데뷔한지 3년 만에 그들의 노력이 차트에서 결실을 맺는 것을 보고있다”고 빅톤이 이번 컴백으로 이룬 성과에 의미를 부여했다.

빌보드는 “2명의 멤버가 ‘프로듀스X101’에 출연한 이후, 새 앨범에 대한 열망이 뒤따랐다”며, “‘프로듀스X101’ 시리즈 출연 연습생이 소속된 다수의 보이그룹이 좋은 차트 성적을 거두고 있다”고 언급해 방송 출연을 빅톤의 급격

한 성장 요인 중 하나로 꼽았다.

이어 빅톤이 지난 4일 발매한 미니 5집 ‘nostalgia(노스텔지어)’와 ‘그리운 밤’에 대해 “첫 6인 체제 음반이자, 18개월 만의 새 음반으로 더욱 주목받고 있다”고 설명했으며, “빅톤 6인은 서정적이면서도 역동적인 전자 트래크와 함께 티저로 아련한 감성을 전하며 실망시키지 않았다”며 새롭게 재정의된 빅톤의 색다른 매력과 굳건함을 강조했다.



빌보드 칼럼리스트 제프 벤자민은 자신의 공식 트위터 계정에 빅톤의 소셜 50 차트 첫 진입을 축하하며 “그들이 새 음반으로 가져온 결과가 정말 마음에 든다”며 빅톤에 대한 관심을 표하기도 했다.

빅톤은 지난 5일 새 음반 ‘nostalgia’로 데뷔 이후 최고 음원 성적을 기록하며 화려한 제 2막을 알렸다.

### MEGABOX 광주첨단점

- 1관 터미네이터:다크페이트
- 2관 신의 한 수-귀수편
- 3관 82년생 김지영
- 4관 신의 한 수-귀수편
- 5관 터미네이터:다크페이트, 가장 보통의 연애
- 6관 닥터 슬립
- 7관 말레피센트2, 조커, 가장 보통의 연애
- 8관 신의 한 수-귀수편
- 9관 82년생 김지영, 날씨의 아이, 아담스 패밀리

문의전화 1544-0070

광주광역시 광산구 엠코로 35(쌍암동)

### CGV\* 광주하남점

- 1관 터미네이터:다크페이트, 닥터 슬립
- 2관 82년생 김지영,
- 3관 날씨의 아이, 신의 한 수-귀수편, 아담스 패밀리
- 4관 신의 한 수-귀수편
- 5관 아담스 패밀리, 82년생 김지영, 닥터 슬립, 빅 위시
- 6관 터미네이터:다크페이트

문의전화 1544-1122

광주광역시 광산구 용아로400번길 30 테라스 56 피크닉몰 2층